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② 돈황에서 찾은 불교신앙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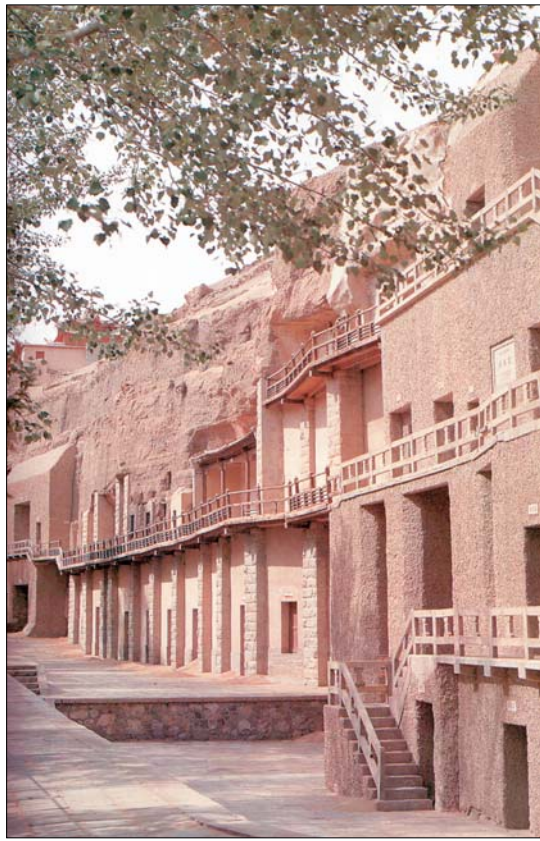
문화의 교차지서 흐름이 시작되다

불교신앙에 대한 여행을 떠나기 위해 머나먼 중국의 서쪽 끝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인도에서 실크로드를 거치는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불교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흔히 중국의 서쪽 끝에 있는 도시를 이야기 하면 돈황(敦煌)이 떠오른다. 외국어 표기대로 하면 돈황이라고 불리지만 돈황이라는 명칭이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름이기에 돈황이라고 표기한다.

돈황하면 돈황석굴이라고 불리는 막고굴(莫高窟)이 떠오른다. 돈황 시내로부터 25km 떨어진 명사산(鳴沙山) 자락 아래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는 막고굴이 우뚝 서 있다.

돈황은 과거로부터 중국도 서역도 아닌 중간에 걸쳐있는 도시였다. 현재 돈황시는 면적 3.2km², 인구 12만 5000명(1998 기준)이다. 중국 감숙성 하서회랑 서쪽 끝 당하(黨河) 유역 사막 지대에 있다. 이 도시는 사막의 도시다. 모래바람이 불어대고 한여름에는 그 열기가 사람을 쉬지치게 한다. 돈황에 들어서면 이곳이 중국인지 다른 지역인지 무척이나 혼란스럽다. 사마표가 <송경지(誦經地)>에 돈황의 뜻을 '화(華)와 웅(戎)이 서로 교류하는 곳'이라고 했듯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돈황은 중국과 실크로드의 사이에서 영원히 방황하는 도시가 아닐까.



막고굴 풍경. 막고굴에 사막의 모래를 막기 위해 쌓아올린 보호벽 덕에 모래바람의 시달림을 피할 수 있었지만 과거에 보여준 번 불상의 자태는 철문과 보호벽에 막혀 버렸다. 또 신앙의 대상이었던 막고굴은 이제 관광객들을 위한 장소로 변해버렸다.

BC 1세기 초에 한(漢) 나라의 무제(武帝)는 이곳을 서역 진출의 전진기지로 삼아 돈황군(敦煌郡)을 설치하고 부근에 옥문관(玉門關)·양관(陽關)의 두 관문을 설치하는 한편, 둔전병(屯田兵)과 한인(漢人)의 식민을 투입함으로써 돈황은 그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게 됐다. 그 뒤 타림분지의 한 오아시스는 중국에서 가장 서쪽에 자리한 변경도시로 변모하고, 서방과의 접촉지를 차지해 한·페르시아인·투르크인·인도인 등 여러 종족이 어울려 사는 국제성을 띤 무역도시로 변모했다.

돈황이 발전함에 따라 머나먼 서역으로부터 무수한 물건과 문화가 흘러들어 왔다. 돈황의 개작(開鑿):

석굴을 뚫는 것(鑿)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사서 상으로 남아있지 않다. 다만 막고굴에 있는 '이회양중수막고굴불감비(李懷讓重修莫高窟佛龕碑)'에 의하면 막고굴은 서기 366년 승려 낙준(樂尊)이 명사산(鳴沙山)과 삼위산(三危山)에 이상한 빛이 있음을 알고 석벽을 파서 굴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시초라고 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14세기까지 약 천년 동안 수많은 굴을 팠으며 그렇게 파게 된 크고 작은 굴의 전체 수가 600개 가량이 된다.

수성암(水成岩)으로 된 석굴이어서 불상은 모두 흙으로 만든 소조상(塑像)이다. 석굴을 판 사람들은 벽화의 제작에도 힘을 기울였다. 벽화는 표면에 석회를 칠한 벽면 위에 짙은 채색을 했는데, 제작 연대별로는 위(魏)와 수(隋) 당(唐) 송(宋)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작됐다. 그 중에는 청대(清代)에 들어와서 그린 것들도 있다.

돈황 막고굴이 개굴되기 이전에 돈황지역에 돈황의 이름을 딴 승려가 존재했다. '월지보살(月氏菩薩)'로도 불리웠던 축법호(竺法護)였다. 그는 월지(정확하지는 않지만 쿠산제국)인의 후예로서 돈황에서 태어나는 했지만 근본은 실크로드 유목민의 후예였다. 돈황에서 출생한 그는 인도에까지 들어갔다 다시 장안으로 돌아와 불경 175권을 번역했다.

월지인은 신비의 종족이다. 중국 땅에서 출발해 지금의 간다라지역까지 가서 정착해 쿠산왕조를 연 그들은 실크로드의 위대한 지배자들 중 하나였다. 이러한 월지인의 후예인 '축법호'를 통해 돈황이 중국도 서역도 아닌 문화의 교차지이자 중국불교를 시작하는 중요한 장소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통에서 중국에 들어오는 불교신앙의 흐름은 시작되는 것이다. 불교는 동아시아에 있어서 매우 이질적인 종교였을 것이다. 이러한 이질적인 종교전통이 문화의 교차지에서 섞이면서 보다 동아시아인의 심성에 파고들어가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을 것이다.

문우왕(사)한국미술사연구소 선임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가을 꽃 코스모스의 이름은 우주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왔다. 우주를 뜻하는 '코스모스(Cosmos)'는 단순히 공간의 의미가 아닌 '질서'와 '조화'의 의미다. 질서와 조화를 이룬 정연하고 완전한 체계를 말한다. 8개의 꽃잎을 반듯하게 피우는 코스모스는 꽃모양에서 그 이름을 얻었다. 몇 해 전 늦은 여름에 미항사를 찾은 적이 있다. 겨울 끝에서 동백을 피우

고 매화를 피우던 마당엔 벌써 코스모스가 하늘거리고 있었다. 아직 한낮의 태양은 뜨거웠지만 여름의 끝에는 어김없이 가을이 오고 있다고 코스모스가 말하고 있었다. 이 우주가 지켜내고 있는 질서를 생각하면, 지금의 우리는 여름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을처럼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제9도 중중기묘가음중장엄

불설아미타경에 나오는 이 삽화는 극락세계의 여러 가지의 새와 그들이 내는 아름다운 소리에 대한 설명이다. 주야 6시로 우아한 소리를 내는 백조, 공작 등이 연못가에서 자유롭게 노니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다. 이 도상은 6쪽 전반부의 1/2에서 6쪽 후반부의 1/2부분까지 이어져 있다.

'사리불아, 극락세계에는 항상 가지가지 기이하고 묘한 여러 빛깔을 가진 백학, 공작, 영무새, 사리새, 가릉빈가(머리는 사람, 몸은 새의 형상), 공명새 등이 있어서 이 새들이 밤낮 6시로 항상 화평하고 맑은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에서 오근(눈, 귀, 코, 혀, 땀), 오력(불법의 실천에 필요한 다섯 가지의 힘: 신력, 전력, 염력, 정력, 혜력), 칠보리본(칠각분: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뒤야야 되는 일곱 가지 방법으로 백법각분, 정진각분, 회각분, 제각분, 사각분, 정각분, 열각분), 팔성도(팔정도: 정경,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등 법문을 설하는 소리가 흘러나오느니라. 그 나라 중생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며 스님들을 생각하게 되느니라. 사리불아 그대는 저 새들을 죄업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극락세계에는 지옥, 아귀, 축생 등의 삼악도가 없기 때문이다. 사리불아, 불국토에는 삼악도라는 이름조차 없는데 어찌하여 축생인 새가 실제로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여러 새들은 모두가 이미 타발해서 법문을 널리 베풀고자 하시는 자비로운 위신력이 변화해서 이루어진 것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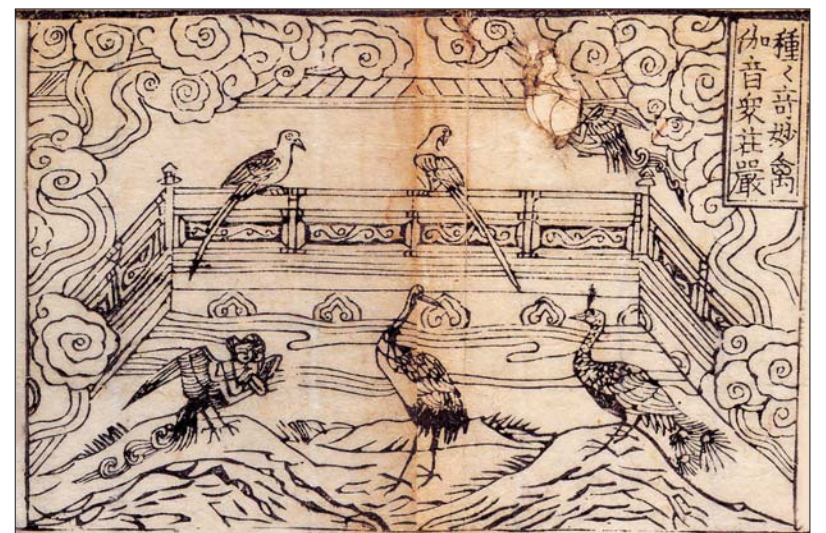
(復次舍利佛 彼國常有種種奇妙雜色之鳥 舍利迦陵頻伽 共命之鳥 是諸衆鳥 晝夜六時 出和雅音 其音演暢 五根 五力 七菩提分 八聖道分 如是等法 其土衆生 聞是音已 皆悉念佛 念法 念佛 汝勿謂此鳥 實是報所生 所以者何 彼佛國土 無三惡道 舍利佛 其佛國土 尚無惡道之名 何況有實 是諸衆鳥 皆是阿彌陀佛 欲令法音 宣流 變化所作)

극락세계에는 아름다운 새들이 하루에 여섯 번 평화롭고 청아한 노래를 부르는데 이 소리를 듣는 극락세계 중생들은 불법승 삼보를 믿는 마음이 더욱 깊어진다. 이 소리를 전하는 새들은 죄업에 의해 윤회하는 중생들이 아니라 아미타불의 위신력에 의해 회연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바세계에는 듣지 않아도 되는 소리와 듣고 싶지도 않은 소리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듣고 싶은 깨우침의 소리를 평화롭고 청아하게 하루에 여섯 번씩 들을 수 있다는 극락세계에 가고 싶어진다.

현실세계에서도 이러한 불음이 널리 퍼질 수 있다면 이 세상이 바로 불국토가 아닌가. 우리 불자 모두는 승속을 막론하고 이 사바세계를 극락정토로 만들고자 서원한 보살이 아닌가. 우리 모두 부처님의 깨달음의 법문이 매일 주야로 여섯 번씩 울릴 수 있도록 보살의 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교관화박물관 관장)



교관화박물관 소장 <불설아미타경> 중 제9도 중중기묘가음중장엄(種種奇妙禽音衆莊嚴) 덕주사판, 1572년 간행, 반곽(半幅) 28.2×21.0cm.

Advertisement for Buddhist products. It features a grid of 32 different items including calendars, postcards, and small books, each with a price and a description. A large banner at the top says '정성드려 만든 2011년 불교달력. 주문하시면 최저할인가격으로 보답합니다.' (We made it with sincerity. Order and we will reward you with the lowest price.)

Advertisement for '718' brand products.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lack, dome-shaped object and text describing its features and benefits. The text says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718' (World's first meditation专用 mat 718) and lists prices for different models: VIP형 49,000원 → 44,000원 and 고급형 39,000원 → 35,000원.